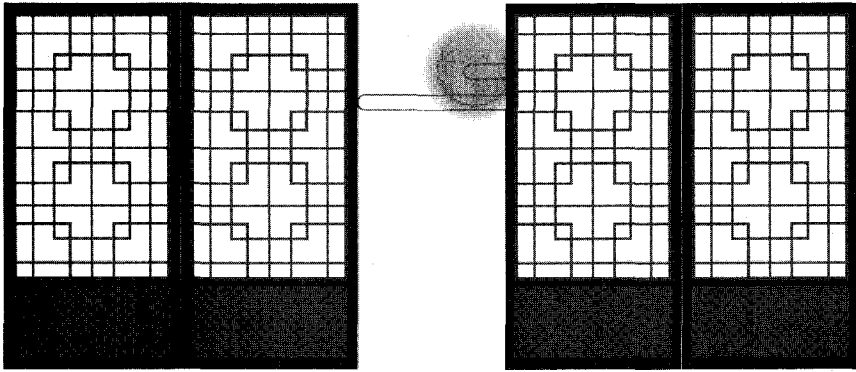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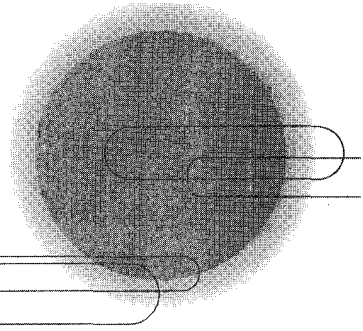


민족 최대의 축제 한가위 바로알기



추석의 유래

한가위라고도 불리우는 추석(음력 8월 15일)은 신라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옛말로 즉 8월 15일인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다. ‘가위’라는 말은 신라때 길쌈 놀이인 ‘가배’에서 유래한 것으로 ‘길쌈’이란 실을 짜는 일을 말한다.

한가위의 기원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신라 제3대 유리왕 9년(서기 32년)에 왕이 6부를 정하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두 패로 가르 뒤,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날마다 6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는데, 밤늦게야 일을 파하고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이 많고 적음을 살펴 가지고 심판을 하였다.

이긴 편에서는 환성을 지르며 덩실덩실 춤추고, 진 편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긴 편을 대접하게 된다. 송편, 기름에 지진 고기, 전 등 갖가지 별식과 대추, 머루, 다래, 배 등의 푸짐한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불렀다.

이에 온갖 유희가 일어나니 이것을 일러 가배(嘉俳)라 하여 한가위가 되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한가위에는 햇녹두, 청대콩, 깨 등을 소로 하여 송편을 만들고, 토란탕을 끓이며, 햇버섯, 도라지, 고기 등으로 화양적 또는 누름적을 부치고, 닭찜을 해 먹었다.

추석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으로는 벌초(伐草),



한가위 바로알기

성묘(省墓), 차례(茶禮), 소놀이, 거북놀이, 강강수월래, 원놀이, 가마싸움, 씨름, 반보기, 올게스니, 밭고랑 기기 등을 들 수 있다.

추석에는 무엇을 하나..

추석에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돌아보는 성묘를 하고 여름동안 조상의 무덤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베어주는 벌초를 한다.

추석을 맞이해 조상의 묘를 벌초하는 것이 자손의 도리와 효성의 표시라 여겨왔다.

또한 추석 이른 아침에 사당을 모시고 있는 종가(宗家)에 모여 고조(高祖)까지의 차례를 지낸다. 차례 지내는 절차가 설날과 다른 것은 흰떡국 대신 메(밥)를 쓰는 점이다. 조상에 대한 추원보본(追遠報本)과 천신제(薦新祭)를 겸하였기 때문에 제물은 신곡으로 만들어 진열된다. 고조 이상의 윗대는 10월에 시제라 해서 묘에서 제사를 지낸다.

강강수월래 강강술래

전라남도 진도군, 해남군 일대에 전승되어 오는 민속 놀이로 주로 팔월 한가위에 노는 놀이이다.

추석날 밤에 곱게 단장한 마을 부녀자들이 수십 명씩 모여 서로 손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뛰노는 민속 전래의 놀이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이 마을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하여 마련했다고 한다. 강강수월래는 부녀자들의 놀이로 남성은 하지 않는 놀이다. 목청 좋은 사람이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강강수월래”하면서 손잡은 채 옆으로 계걸음으로 뛰면서 다음 선창을 기다린다. 처음에는 진양조로 느리게 춤추다가 차츰 빨라지면서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변하고 선도자의 능력에 따라 여러 변화를 줄 수 있다.

소먹이 놀이

추석날 차례를 마치고 난 뒤 알맞은 시간에 소놀이는 진행된다. 먼저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농악대가 풍물을 울리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상쇠의 선도에 따라 한바탕 신나게 풍물을 울리며 어우러져 놀다가 소놀이가 시작된다. 두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그 위에 명석을 뒤집어 씌우며 뒷사람은 큰 새끼줄로 꼬리를 달고, 앞사람은 막대기 두 개로 뿔을 만들어 소의 시늉을 한다. 소를 끌고 농악대와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농집이나 그 해에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간다. 대문 앞에서 ‘소가 배가 고프고 구정물을 먹고 싶어 왔으니 달라’고 외치면 주인이 나와서 일행을 맞이한다. 소를 앞세우고 일행은 앞마당으로 들어가 농악을 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면 주인집에서는 술과 떡과 찬을 차려 대접한다. 마을 사람들은 한참 놀다가 다시 소를 끌고 다른 집으로 향한다. 이렇게 여러 집을 찾아가 해가 질 때까지 어울려 논다. 농사를 천하의 대본으로 여겨 온 농경 민족에게 있어 농사를 잘 지어 풍작을 거두게 하였다는 것은 큰 공이니 위로하고 포상하는 뜻에서 소에 태우는 영광을 주는 것이다.



만족 최대의 축제

한가위 바로알기

원놀이, 가마싸움

옛날 서당 교육은 훈장을 초빙해서 가르치는 것이었다. 명절이 되면 훈장도 고향에 가서 차례 성묘를 하게 되므로 서당은 몇일을 쉬게 되고 학동들은 자유롭게 놀 수가 있었다. 이럴 때에 학동들에 의해서 원놀이와 가마싸움이 있게 된다. 원놀이란 학동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재치 있는 사람을 원님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학동들은 백성이 되어 원님께 소장을 내어 그 판결을 받는 놀이인데, 오늘날의 대학에서 행해지는 모의 재판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이 때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원님은 사건을 잘 해결하지만 서투른 원님

은 백성들의 놀림감이 된다. 장차 과거에 등과해서 벼슬을 하고 백성을 다스려야 할 학동들의 놀이로서는 매우 적격이었다.

가마싸움도 학동들이 추가되어 행하여졌다. 훈장이 없는 틈을 타서 가마를 만들어 이웃 마을 학동들과 또는 이웃 서당의 학동들끼리 대결을 하는 놀이이다. 가마를 끌고 넓은 마당에 나아가 달음질해서 가마끼리 부딪혀 부서지는 편이 지게 되는데 이긴 편에서 당년에 등과가 나온다고 한다.

반보기

추석이 지난 다음 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홈쇼핑으로 알뜰한 한가위

짧은 올해 여름, 어느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농수산물 가격이 올라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더 들 것이라ں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알뜰 한가위를 위해 추석마케팅이 한창인 홈쇼핑업체를 살펴보자.

●LG홈쇼핑

‘한우 짬갈비 혼합’은 실제 갈비 20kg 가운데 8kg 정도만 상품화했을 정도로 기름을 완벽하게 제거한 상품으로 25만4000원에 판매한다.

인터넷쇼핑몰 LG이숍(www.lgshop.com)은 26일부터 한가위 기획전을 벌이고 있다. ‘단체선물 특판코너’에서는 10~40% 할인 판매한다.

●CJ39쇼핑

‘미리 준비하는 추석상품’을 주제로 제수용품과 추석선물을 특집편성한다.

남원 전통 목재기 세트를 23만5000~35만5000원에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판매한다.

인터넷쇼핑몰인 CJ몰(www.CJmall.com)에서는 한우갈비세트를 kg당 2만5000~4만원에 내놨다. 백화점·재화·외식·문화·헤어·골프상품권 등 다른 쇼핑몰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품권까지 판매한다.

●현대홈쇼핑

이번 추석행사 기간에 정육 굴비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약 3만개를 확보해 본격판촉에 나선다.

초이스급 LA갈비는 4kg에 6만4000원으로 나뉘었다. 영광해풍굴비 2호(23cm 이상)는 9만9000원이다.



한가위 바로알기

리 일자와 장소를 미리 정하고 만나는 것을 반보기라 한다. 반보기란 중로(中路)에서 상봉했으므로 회포를 다 풀지 못하고 반만 풀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옛날에 시집간 여자들은 마음대로 친정 나들이를 할 수가 없었으므로 모녀 사이에 중간 지점을 정해서 서로 즐기는 음식을 장만하여 만나 한나절 동안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회포를 푸는 것이 반보기인 것이다. 또 한 마을의 여인들이 이웃 마을의 여인들과 경치 좋은 곳에 집단으로 모여 우정을 두터이 하며 하루를 즐기는 수도 있다.

올게심니

추석을 전후해서 잘 익은 벼, 수수, 조 등 곡식의 이삭을 한 줌 베어다가 묶어 기둥이나 대문 위에 걸어 두는데 이것을 올게심니라고 한다. 올게심니한 곡식은 다음해에 씨로 쓰거나 떡을 해서 사당에 천신하거나 터주에 올렸다가 먹는다. 이 놀이는 다음해에 풍년이 들게 해 달라는 기원의 뜻을 지니고 있다.

소싸움 놀이

경상남도 지방에서 성행하며 주로 한가위날 벌인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싸움 소를 따로 길렀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마을 전체의 영예로 알았다. 이를 주관하는 이를 '도감'이라 부르며 도감은 싸움 소의 나이·체구 등에 따라 비슷한 것끼리 싸움을 붙인다. 무릎을 꿇거나 넘어지거나 뒤로 밀리면 지는 것으로 한다.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추석이 되면 어김없이 고속도로는 고향으로 부모님을 뵈러 가는 사람들이나 성모가는 사람들로 정체가 심해진다.

한편 모처럼 연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놀이공원이나 민속공원을 찾아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올해 추석에는 각 놀이공원과 명소에서는 다채로운 가족행사를 준비해 사람들의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에버랜드

9~13일 5일간 유토피언광장에 민속놀이마당을 꾸민다.

제기차기 투호 널뛰기 윷놀이 등의 게임을 진행, 푸짐한 상품을 준다. 에버랜드 입장객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페스티벌월드 특설전시관의 "폴벌레 가을음악회"(10월3일까지, 무료)는 온가족이 동심에 젖을 수 있도록 꾸민 이색 이벤트로 들과 습지처럼 조성된 2백여평 규모의 전시관에 귀뚜라미 방아깨비 매뚜기 등 12종 1천여마리의 폴벌레를 방사해 "가을이 오는 소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랜드

12~13일 이틀간 한가위행사를 모았다.

오전 10시30분부터 삼천리동산 연꽃분수 주변에 "놀이 한마당"을 마련, 한가위 흥을 돋운다. 온가족이 줄넘기 투호 칠교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민속 최대의 축제

한가위 바로알기

뿌리패예술단이 삼천리동산(낮12시), 삼천리대극장(오후2시), 씨름장(오후5시), 세계의광장(오후9시)에서 흥겨운 사물놀이가 펼쳐 진다.

오후 4시에는 민속씨름장터에서 인간문화재 김대균씨가 외줄타기 공연을 한다. 또 중.고생 씨름단을 초청, 오후 1시30분 씨름장에서 힘겨루기 한판을 벌인다. 오후 2시, 5시엔 세계의광장에서 널뛰기 공연을 한다. 모든 입장객이 하나되어 강수월래를 하는 시간(오후 9시)도 준비했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놀이마당(12~13일 오후 1시, 3시)에서 “사물놀이 한마당”을 꾸민다. 김경수 김복만이윤구 길기옥 등이 팀을 이룬 “진쇠”가 사물놀이의 진수를 선사한다.

놀이마당에는 또 제기 윷 투호 등의 민속놀이 기구를 비치, 민속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즐길수 있도록 했다. 어드벤처 퍼레이드코스에선 9일부터 매일 오후 2시 전통민속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용 모습의 차전놀이 행렬을 선두로 각종 민속놀이를 길놀이형태로 펼쳐 보이고 어드벤처 가든스테이지에선 민속무용단의 부채춤 북춤 공연, 서커스공연과 팔씨름대회도 곁들이는 “한가위 큰잔치”(12~13일 오후 4시)를 벌인다.

또 온가족이 한팀이 돼 다른 가족과 맞서는 “가족 민속놀이대회”(10~13일 오후 6시)도 열린다.

한국민속촌

자녀와 함께 전통생활체험(10~13일 전시기옥)을 할수 있도록 준비했다.

햇곡식을 맷돌이나 절구로 찧고 타작도 해보며 오즘싸개해보기, 괴나리봇짐져보기, 우장입어보기 등 자녀들이 전통문화를 이해할수 있도록 했다.

공연장 공터에는 연휴기간 내내 직접 떡메를 치고 현장에서 무료시식할수 있는 코너도 연다.

추석당일에는 송편만들기 가족대회도 벌인다.

“통일기원 나라곳”(13일 낮 12시, 29호 관아마당)을 통해 분단의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민족의 한을 풀어내고 “호남우도농악”(10~13일, 낮12시 오후 3시 공연장), 줄타기(오후 12시40분, 3시40분 줄타기공연장), “연변조선족의 민속널뛰기”(오후 12시30분, 3시30분 공연장)등의 특별공연 시간도 마련했다.

남산골한옥마을

9~13일 닷새간 “통일달, 풍년달 하나되는 한가위”를 주제로 남북문화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의 뿌리를 재조명하는 행사를 펼친다.

“남의 소리, 북의 탈춤”(11~13일 오후 3시 천우각광장)을 통해 남북 전통문화의 특색을 살피고 그 속에서 동질성을 찾아본다.

“민속놀이 시범공연”(12~13일 오후 2시 공동마당)은 동심에 비쳐진 단일민족의 태생적 공통점을 발견해 보는 자리로 꾸민다.

“추석상차림과 예절강좌”(10~11일 오후 1시 박영효가옥마당)를 열며 “민속주축제”(9~13일 오전 11시 공동마당)엔 20여종의 북한술도 선보인다.

